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희



구례 박진호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 ‘쓰레기를 자원으로!’

### 장성군, 지역업체와 맞손

#### 전주에너지와 자원순환정책 공동상생 업무협약

최근 재활용 쓰레기 수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장성군이 문제에 발빠른 대응을 보여 눈길을 끈다.

장성군은 9일 폐기물 전문 처리 업체인 (주)전주에너지와 재활용 쓰레기 자원화하는데 양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장성군은 쓰레기 수거 후 폐비닐류와 폐목재류를 선별해 (주)전주에너지로 분출하고, 업체 측은 이를 고형 연료로 자원화하는데 향후 10년간 협력키로

했다.

장성군은 2018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지원 체계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준비해왔다.

한편, 이들질이 있는 쓰레기는 재활용이 불가능해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를 올바로 재활용한다면 환경과 지원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며 “기정으로 서부터 분리 배출을 철저히 해 준다면 지원화 과정이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주민의 협조를 구했다.

지난해 장성군에는 환경부가 주최하는 2017년도 순환자원정보센터 활성화 캠페인 경진대회에서 전주에너지와 상생하여 우수기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장성=반정모 기자

#### 함평군, 나비축제 손님맞이 위생·친절교육 실시

##### 외식업소의 경영관리·위생·친절한 서비스 점검



함평군은 지난 10일 함평엑스포 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7일부터 개최되는 함평나비축제가 2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식업 함평군자부(지부장·문선호) 주관으로 외식업소의 경영관리와 위생, 친절한 서비스를 점검코자 마련됐다.

교류에 앞서 나기열 민원봉사과장은 “함평민의 특색 있는 음식은 물론이고, 식품안전관리를 기본으로 한 철저한 위생관리와 친절한 서비스로 관광객이 감동해 우리 지역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은 정명희 민원봉사과 위생 담당과 박진희(소상공인진흥센터), 이정화(LH교육지원센터) 강사가 관련 법령 안내, 식중독 예방교육, 음식문화개선교육, 외식업소 경영관리, 친절서비스 등을 각각 진행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 영광군,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수상

영광군은 지난 10일 서울 공군 회관에서 개최된 제23회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환경안전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효율적인

분권 시행과 함께 제정된 시장제도로 민간부문이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여 시상하는 제도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영광군은 환경안전분야의 공적을 높여 평가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영광=서희권 기자

#### 구례군, 올바른 신체활동 습관 형성 어린이 건강교실 운영



보건의료원 통합건강증진팀의 영양상담사는 ‘편식은 삶어요, 아침밥은 꼭 먹어요’라는 주제로 건강한 식습관과 비만예방 교육을 중심적으로 펼칠 예정이며, 유아체육지도자 전문강사는 공 던기, 스트레칭, 배트, 월틀, 줄넘기 등 운동 놀 이를 통해 기초체력을 기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어린이 건강교실을 통해 어린이들이 바람직한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 보성군, 전 공무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 양성평등의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

보성군은 지난 10일 군청 대회 의실에서 전 공직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운동에 발맞춰 직장 내 성차별을 개선하고, 상호 배려하는 양성평등의 건강한 직장분

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오전·오후로 나뉘어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으며, 강의는 사나누리회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배미진 강사를 초청하여 ‘No More! 가정폭력’, ‘폭력예방은 작은 관심으로부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직장 내 왜곡된 성의식 개선 및

건전한 가치관을 위한 각종 사례와 4대 폭력 예방조치 등을 이해하기 쉽게 강의가 이루어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 간 배려와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 신안군, 슬로시티 전 지역 확대 재인증

##### 옛날 방식 전통 유지·갯벌 등 바다 생태계 보존 우수 평가



티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결과 신안군이 슬로시티 이름을 지으며,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 발달지로써의 면모를 유지해나가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군은 이번 확대 재인증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관광진흥기본계획인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할 방침이다.

이번에 예정된 조직개편을 통해 슬로시티 제3기(2018~2022년) 추진을 위한 전담 팀을 꾸리고, 향후 5개년의 방향을 담은 ‘슬로시티 신안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중도의 성공모델을 전 읍면에 확대 전파하고 추가 거점 지역 개발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특히, 슬로시티 아름 전파의 기본이 되는 교육 사업을 지역주민, 공무원 및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행하고 주민 대상 설명회는 물론, 슬로공동체 지도자과정’ 자격증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슬로시티 운동의 국내외 전파를 위한 홍보 및 축제·이벤트 개최, 신안군의 특별한 슬로시티 체험 및 생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신안 관광객 5백만 시대 조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슬로시티 재인증 평가는 5년마다 이뤄지고 신안군은 2007년 최초 인증 후 이번이 세 번째 인증이다. 국내에는 신안군을 포함해 13개 지자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www.jepa.kr](http://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7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건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부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리보호·지원

- 근로조건 명약사용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전경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민사권리방안 안내